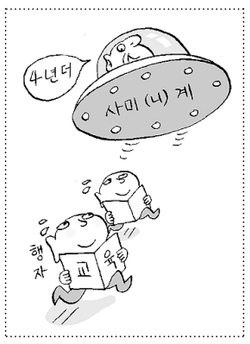
새 '틀' 필요한 승가교육

종교의 흥망성쇠는 얼마나 훌륭한 종교지도자를 육성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동서고금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정신적 수행력과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종교조직은 발전하는데 비하여 그렇지 못한 종교조직은 소멸되기 쉽다. 따라서 시대를 선도하고 정신적 지도력을 갖춘 종교지도자는 체계적인 교육과 오랜 수행과정을 통해 배출된다.

또한 종교 간의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승가교육이 타 종교의 성직자교육에 비하여 교육기간과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가교육이 불교 내부의 욕구나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통 승가교육은 수행 습의와 교학의 기초를 연마하는 데는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님들의 지적 수준과 수행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승가교육의 교재나 내용, 그리고 교육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교육은 주어진 기간 동안 피교육자를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도록 이끌어 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승가교육이 사회교육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다.

사회교육 수준·방법 참고해야

교육 반듯해야 수행도 '반듯'

둘째, 승가교육체계의 비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최소 6개월의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사미(니)계를 받고, 승가대학(강원)의 기본교육 4년을 수학하고 비구(니)계를 받는다. 그리고 다시 중앙승가대학교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스님들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학벌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영향도 있지만 승가에 주어진 역할 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측면도 있다. 또한 수행만을 중시하고 체계적인 승가교육을 무시하는 경향도 문제가 있다. 결국 현행의 '선득도 후교육'은 '선교육 후득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한 뒤 구족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가교육과 수행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증득한 깨달음의 세계를 중생에게 회향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중생, 보리, 실제의 세 가지 회향정신이 승가교육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 때 한국불교는 발전할 수 있다.

승가교육제도 개선의 논의가 결실을 거두어 더욱 여법하고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스님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개정 '유아교육법'이 불교 유치원에 줄 영향은?

활성화 호재…자율운영이 관건

재정·원아 증가 등 안정적 운영 기대
"특수성 감안돼야" 건의서 제출 계획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불교계 유치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만5세)의 유아 교육 · 보호는 무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또한 △유치원 종일반 확대 △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비용 보조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 · 보육위원회 설치 △유아관련 교육 프로그램, 교재개발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원 신설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불교계 유치원들은 유치원 운영과 교사들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유치원 활성화의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와는 달리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저임금과 비안정적인 생활로 질 높은 교육을 담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교육법의 핵심인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과 종일반 확대 및 지원 법안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원아증가라는 부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180여 곳에 달하는 불교계 유치원 중 대부분은 종단이나 사찰에서 직 ·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다.

강원도사립유치원연합회장 효종 스님(성불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법 통과로 인해 사립유치원들은 재정적 안정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과 교사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장 정인 스님은 "유치원들이 공교육체제에 편입되면 영세한 절들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은 정부의 간섭을 직 ·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유치원 운영방식 등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아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겠다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는 우려의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종교계 유치원의 설립배경과 그 특수성, 독립적 운영의 중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련 단체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한국불교문화 강좌'에 외국인 관심 꾸준

템플 스테이로 시작된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식을 줄을 모른다. 서울국제여성협회(SIWA)가 최근 올 상반기 문화강좌(Interest Group) 참가자 등록을 받은 결과 국제포교사회(회장 조우영)가 주관하는 '한국 불교 및 문화 강좌'(Korea & Buddhist Culture)에 12명이 신청을 한 것.

서울국제여성협회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에는 모두 38개의 프로그램이 등록돼 있으며 한 강좌당 평균 6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1956년 결성된 서울국제여성협회에는 60여 개국 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번 강좌 등록에는 200여 명이 참가했다.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는 '한국 불교 및 문화 강좌'는 템플 스테이의 변형으로 1월 28일부터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매월 2, 4주 수요일 오전 10~12시, 모두 8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첫 강좌인 28일은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영상물 시청, 연등 만들기 등으로 진행되며 참선, 다도, 사찰음식 만들기, 선 요가 등으로 꾸려갈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지역조직 활성화로 전진하자"
대불청 핵심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가 올 한해를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조직 · 포교 · 교육 · 연대사업 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불청 T/F Team 교육'으로 앞으로 불청을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불청 핵심 활동가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7월 16일부터 진행될 불청 T/F Team 교육사업은 리더그룹, 실무자그룹, 전문가그룹으로 나눠져 8월 22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정상옥 회장은 "불청 T/F Team 교육이 일시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불청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구 · 지회 안에 적합한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검증 돼야 진정 접수"
조계종 호법부 방침 세워

조계종 호법부가 검증 불가능한 무기명 진정이나 투서, 탄원 등에 대해 무효처리하겠다고 1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정 내용이 6하 원칙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처리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 무르익는 '불교환경의제 21'

불교계 환경지침서가 될 '불교환경의제21' 초안이 2월말 경 확정된다. 확정된 초안은 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보고 및 결의문 채택 후 교구본사 주지회의 보고 및 결의를 통해 시행될 계획이다.

▲'불교환경의제21' 이란?

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채택된 위한 행동강령이다. 모든 지구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구환경의 파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실천계획을 강구했던 것이다. 불교환경의제21도 불교계가 21세기 환경보전을 위한 불교계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에 관한 기본원칙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일 뿐 아니라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분야별 의제

불교환경의제21은 크게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네 분야로 나뉘어 마련된다.

'환경 불교' 실천 지침
내달 초안 확정…금년말 확정될 듯
지원·점검 위한 예산·불자참여도 관건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산중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사찰 주차장을 일주문 밖에 설치토록 하는 대기오염 · 소음 없는 친환경적 사찰 구현. 생태사찰 만들기 분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찰에 '산감(山監)' 소임을 되살려 환경담당 전문가로서 임부를 부여하고, 종단에 문화재 전문가와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사찰불사 자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에서는 법제도의 정비, 관련기구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종단은 의제 수립의 실질적인 책임주체로서 장 · 단기 계획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 및 제도 정비와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찰들은 의제 실천의 주요한 주체일 뿐 아니라 종단과 재가불자들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불교 NGO들은 의제 지원 및 점검에 도움을 줘야 하며 재가불자들도 의제가 정착되도록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별도의 의제 추진위 사무국을 운영해 정책 개발 및 의제실천 지원 및 점검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종단과 NGO 연계, 전문가 집단 용역 등이 가능하기 위해선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과제와 전망

종단-사찰-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조건이다. 불교환경운동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불교계 내 관심 있는 소수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는 태생적 한계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유철주 간사는 "의제실천 점검 및 종단 환경 종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가 끝나면 올해 말 확정안 및 종단 5개년 환경 종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신년(2004) 새해 새아침에
불자님과 함께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말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솜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맘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여유롭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봉사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행복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정초신장기도
◎ 일시 : 1월 25일 ~ 2월 1일까지 오전 10시

입춘기도
◎ 일시 : 2월 1일 ~ 2월 4일까지 오전 10시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